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7월 11일

## CUOMO 주지사, ORANGE 카운티에서 START-UP NY 운동에 대해 설명

### *주지사, 뉴욕주의 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어젠다를 설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ewburgh에 위치한 SUNY Orange에서 Start-Up NY 운동과 이 운동을 통해 뉴욕주가 얻게 되는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Start-Up NY를 통해 뉴욕주 커뮤니티들은 민간 부문과 뉴욕주의 주요 고등교육 기관 네트워크 사이의 확대된 제휴로 발생할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는 뉴욕주의 모든 지역사회를 위해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의회 회기 중 하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 우리는 경제 개발 패러다임을 Albany의 하향식 모델로부터 상향식으로 구축된 일자리 의제로 바꾸었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그러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중산층 세금을 60년 중 가장 낮은 세율로 낮추고 혁신적 기술 이전 이니셔티브를 실시하며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등 올해는 이미 경제 개발을 이룬 아주 성공적인 한 해였습니다. 올해의 세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동인 Start-Up NY로 마무리했는데 SUNY 학교 주변에 면세 구역을 조성하여 새로운 민간 투자와 채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의회 회기의 업적은 뉴욕주가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Irwin Alain Kaloyeros CNSE 부총장 겸 CEO는 “Andrew Cuomo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은 거의 틀림없이 뉴욕주에서 가장 과감하고 가장 예지력 있는 경제 개발 프로그램이며, 교육과 혁신의 힘을 이용하여 뉴욕주의 첨단 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로부터 수준 높은 일자리와 비즈니스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뉴욕이 변화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주지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뉴욕 시민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enator William J. Larkin, Jr.는 “Start-Up NY는 불황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커뮤니티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과감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체에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Cuomo 주지사는 사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뉴욕 주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James Skoufis 주 의회 의원은 “너무나 오랫동안 Orange 카운티 커뮤니티는 사업, 일자리 및 주민이 기회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Cuomo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사업, 일자리, 주민이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와 커뮤니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Orange County Community College와 같은 조직에 대해 세금 면제 커뮤니티를 제공함으로써 이 주지사의 제안은 Orange 카운티 커뮤니티를 경제 개발의 원동력으로 변화시키고 뉴욕을 경제적 경쟁력의 선두 위치에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주지사가 흥미진진한 이 프로그램을 제안한 점을 칭찬하며 이 프로그램이 모두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range 카운티 행정관 Edward Diana는 “Cuomo 주지사는 뉴욕의 경제 활동을 자극하는 데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Start-Up NY 프로그램은 우리 고등 교육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이 자신의 사업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이 주지사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성공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udy Kennedy Newburgh 시장은 “Start-Up NY은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선구적인 접근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사업이 성장하고 오래 유지되려면 우리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최고의 대학과 컬리지와 함께 하는 공사 파트너십과 새로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세금 면제 커뮤니티를 통해 Start-Up NY는 뉴욕주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e DeStefano Middletown 시장은 “뉴욕은 오랫동안 사업체와 주민의 이탈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마침내, 뉴욕은 Middletown과 같은 커뮤니티에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업체 유치에 필요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힘을 아끼지 않는 주지사를 얻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은 10년 간 지속된 문제에 대한 흥미진진한 해답이며, 저는 Orange County Community College와 같은 기관을 통해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 주지사의 혁신적인 접근법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range 카운티 파트너십 회장 및 CEO인 Maureen Halahan는 “뉴욕주는 혁신과 기술 개발의 글로벌 리더이지만 우리는 컨셉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을 우리 주의 고등 교육 네트워크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과감한 접근법입니다. 저는 Start-Up NY의 실행을 통해 Orange 카운티의 미래의 경제적 성장을 약속하는 Cuomo 주지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는 우리 경제에 편입될 수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range 카운티 상공 회의소 회장 겸 CEO인 John D'Ambrosia는 “과거의 지역 경제 개발 위원회와 같은 Cuomo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은 사업체에 대한 훌륭한 경제적 자극이 될 것입니다. 민간 부문과 우리 고등 교육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민간 투자를 독려할 수 있고 뉴욕주

커뮤니티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를 지원한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UNY Orange 회장인 Dr. Richard William은 “뉴욕의 졸업생은 오랫동안 국가에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적인 개념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 주지사의 Start-Up NY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UNY Orange와 같은 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자산을 자본화할 수 있는 과감한 접근법입니다. 이는 Orange 카운티 커뮤니티에 진정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이며, 저는 민간 부문과의 흥미진진한 협력이 더 많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Start-Up NY

Start-Up NY는 뉴욕주를 일자리와 민간 부문 투자를 위한 카드의 맨앞에 두는 혁신적 게임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신규 및 기존 기업들은 판매세, 재산세 또는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 없이, 즉, 뉴욕주 세금 없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회사의 직원들은 소득세를 최대 10년간 면제받을 것입니다. 뉴욕주의 세계적 수준의 SUNY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택된 사립 대학교들과의 제휴로 우리 학생들도 자신이 공부한 분야에서 취업을 추구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업체들이 뉴욕주 북부 지역에 남아서 발전을 꾀할뿐 아니라 졸업생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남아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뉴욕주의 선도적 고등교육 시스템을 근거지로 한 면세 커뮤니티 창설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주지사는 지역 경제를 기업이 뉴욕주에 모여들어 머물게 할 매우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Start-Up NY에 대한 상세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세션 마지막 성과는 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2013-2014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합니다:**

**고통스러운 도시:** 재무 구조조정 위원회(Financial Restructuring Board)는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지자체를 위한 강력한 재무 기반을 만들기 위한 협력적인 사례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뉴욕주의 해당 중재법의 개혁에는 중재 위원회가 계약 결정의 70%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지불 능력” 표준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뉴욕주의 2% 재산세 한도 요건에 대한 특별 고려가 포함됩니다.

**중산층 가정을 위한 세금 삭감:** 뉴욕주 납세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세금을 과징 당해왔다는 인식 하에 본 예산은 3년 동안 중산층 가정에 대한 12억 3000만 달러의 신규 세금 삭감을 포함합니다. 소득이 \$40,000~\$300,000 사이인 가정은 2014년부터 년 \$350의 신규 자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세금 삭감:** 뉴욕주의 일자리 창출 업체에게 세금 경감을 제공하기 위해 본 예산은 3년에 걸쳐 뉴욕주 기업을 위한 약 8억 달러의 세금 경감을 포함합니다. 이 세금 경감으로 본 예산은 세금 삭감이 뉴욕주가 친비즈니스적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민간 부문에 보내고, 미국의 세금 수도라는 뉴욕주의 오래된 평판을 뒤집는데 도움이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용 세금 감면: 뉴욕주의 귀향 군인들과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도록 돕기 위해 본 예산은 제대군인 고용을 위한 영구 세금 감면과 젊은이를 고용하는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을 포함합니다.

**지역 협의회 성공 위에 구축:** 본 예산은 세 번째 차수의 지역경제개발협의회를 위해 새 기금으로 1억 5000만 달러와 세금 감면으로 7000만 달러를 포함합니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SUNY 및 CUNY 캠퍼스:** 본 예산은 세 번째 차수의 SUNY 2020 프로그램을 위한 5500만 달러를 포함하며 경제 발전과 학문적 우수성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경쟁 교부금을 제공하는 CUNY 2020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기 위한 5500만 달러를 포함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